

이웃까지 죽인 부부싸움

LP가스통에 불붙여...다가구주택 붕괴 3명 숨져 97.3.5

4일 0시55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2 다가구주택 2층 강희장(43)씨 집에서 강씨가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엘피가스통에 불을 붙여 가스가 터졌다.

이 폭발로 9가구가 사는 3층 다가구주택 일부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무너져 강씨와 이경희(32), 김영순(84·여)씨 등 3명이 건물더미에 깔려 숨지고 김영순(33·여)씨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. 또 가스 폭발로 인근 주택 유리창 수백장이 깨지고 주민 2백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.

경찰은 강씨가 가스통을 열어 가스를 새나오게 한 뒤 라이터를 꺼내는 것을 보고 대피했다는 강씨 아들(15)의 말에 따라 강씨가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벌이다 가스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. 부천/홍용덕 기자